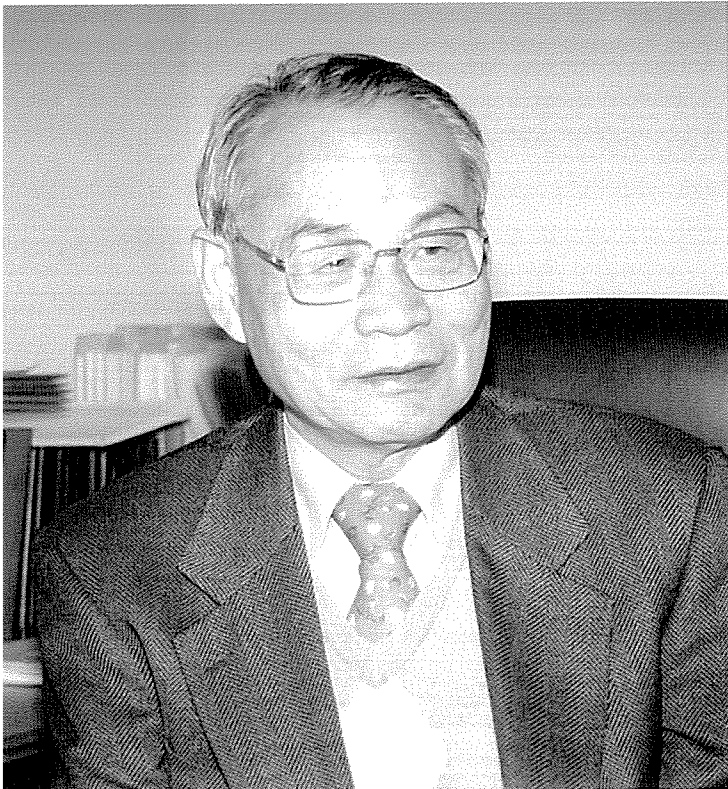


■ 신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인규 원장

“남북 과학기술인 폭넓은 교류 조속 추진”



제3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에 선임된 한인규박사는 “앞으로 한림원 조직을 5개부에서 6~7개부로, 정원도 5백명에서 5백50~6백명선으로 또 부장과 부원장 수도 각각 7명으로 확대 개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북한 과학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남북한 과학기술인들의 폭넓은 교류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담 : 3월 7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실

■ 제3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과 기술」지에서 제가 한림원 제3대 원장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러한 대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내 생애에 있어서 한림원장 업무가 마지막 학술봉사라고 생각하면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제3대 한림원장으로 선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번 원장 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분야에서 원장이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렇 수도 있겠지요. 특히 한림원은 이공학부 중심의 아카데미라고 믿고 있던 분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학술단체 즉 과총이나 학술원의 장이 분야별로 순환(rotation)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결코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림원도 이제는 원장이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선출되는 전통을 수립하게 된 셈이고 많은 회원들의 이런 생각이 공감대를 이루었기에 제가 원장

으로 선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공이 다른 분야간에 균형있는 발전과 참여도를 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뉴욕과학아카데미 정회원 활약

■ 원장께서는 현재 미국 뉴욕과학아카데미 정회원과 러시아 농업과학아카데미 및 제3세계 과학아카데미의 종신회원인 것으로 압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이들 과학아카데미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뉴욕과학아카데미의 구성원은 여러 나라의 유명한 과학자가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순수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비해 제3세계 과학아카데미는 40여개국에 이르는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이 주축이 되어 여러 나라의 이학·공학·농학·의학 학분야의 권위있는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농업과학아카데미는 주로 소련의 농업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분야 과학아카데미라는 점에서 우리 한림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제3세계 과학아카데미와도 다르고 하겠습니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날 우리나라에서도 의학아카데미와 농수산학아카데미의 출범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한림원이 좀더 포용적이고 종합적인 중심점이 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림원장으로 뽑힌 것도 이러한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림원이 그동안 해온 일은 주로 어떤 것이며 올해의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요.

지난 6년 동안 두분의 전임 원장님들 즉 조완규 초대 원장님과 전무식 제2대 원장님께서 한림원의 초창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두분께서 한림원의 설립에 따른 조직과 규정의 정비, 각종 정책연구과제의 수행, 원탁토론회, 국제 및 국내 심포지엄의 개최, 국·영문 한림원 소개책자 발간, 회원명부 제작, 국·영문 연차보고서 마련, 각종 심포지엄 회보(proceedings) 등 30여종의 간행물 출판, 4백50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각 분야를 대표하는 과학자들의 회원 추대, 한림원상을 제정하고 한국과학재단(KOSEF)이 수여하는 공학상과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 선정업무 대행 및 22개국 과학아카데미와의 학술교류 협정서



한 원장(오른쪽)이 이광영 본지 편집위원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체결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우리 한림원이 주축이 되어 아세아과학아카데미 연합회(AASA)를 설립하였고 사무실을 우리 한림원에 설치함으로써 위상을 높였습니다. ① 한림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② 회원의 예우와 복지증진대책 수립 ③ 부족한 운영예산의 대폭 증액(2~3배로) ④ 부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각종 규정의 합리적 개정 ⑤ 회원자격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⑥ 한림원 운영의 민주화 ⑦ 회원의 한림원 운영 및 행사 참여도 제고 ⑧ 원장 선거제도의 개선 ⑨ 사무처의 안정적 발전 및 처우개선 ⑩ 한림원 전용건물의 확보 ⑪ 남북 과학자 교류의 촉진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원 5백50~6백명으로 확대 개편

■ 한림원이 앞으로 보다 발전하고 역할을 증대해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 보시는지요. 이를 위해 한림원의 정관과 기구 또는 조직을 개편할 생각은 없는지요.

필요하다면 현재의 5개 부에서 6~7개 부로, 정원도 현재 5백명을 5백50~6백명 선으로 증가하고 부장과 부원장의 수도 각각 7명씩으로 하는 등 조직개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장 선거제도(단임)와 임기조항을 전향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이사의 선출방법을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각종 발전계획과 조직개편 등은 앞으로 구성, 운영할 각종 위원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한림원의 의사로 결정될

것입니다. 흔히 21세기를 생명과학의 세기,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세기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림원에 생명과학부를 신설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금세기는 전자·정보·통신이 꽃피는 세기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학부의 신설도 고려해 볼만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림원 회원들은 모두가 해당 분야에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논문 편수가 많은 석학들의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과학자들의 집단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분야의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한림원 회원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림원은 국내 관련 학술단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석학들이 보다 우수한 연구업적을 수립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림원의 각종 기구와 조직이 탄력성 있게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단연구 몰두할 환경조성 필요

■ 원장께서는 축산학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한국과학재단의 국제협력위원회 위원(92~98년)과 우수연구센터 생명과학분야 평가위원장(92~93년), 한·일 기초과학 교류위원회 위원장(98~2000년), 전국과학정보기술 인협회 공동회장(99~2000년)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전반적 수준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남다른 식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과학정책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 보는지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제가 원장으로 정식 취임한 다음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듯 싶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고 상위 중진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빠른 시일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들이 더욱 열심히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첨단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인센티브의 부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국가의 R&D 투자가 GDP 대비 4% 이상에 이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도 하루 속히 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연구과

제의 선정, 객관성 있는 평가제도,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포상제도의 확대, 좋은 논문을 게재·보급할 수 있는 우수 학회지의 육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원장께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남·북 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종합분과위원(90~99년)으로 다년간 관여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최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남·북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는지요.

우리 대통령께서 연초에 있는 과학기술인 새해 인사회에서 언급하신 바도 있지만 이제는 휴전선지역 생물자원의 남북한 공동조사 및 관리라든지 나아가서 남북한 과학기술인들 간에 폭넓은 교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풍문에 들리는 북한의 산업사정은 식량생산과 농업 및 산업기술 등의 기술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허락한다면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학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상호 과학기술교류 증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림원은 가칭 '남북 과학기술교류 촉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계나 정부 또는 정치와 경제계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우리 과학기술인 특히 한림원 회원은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전에 먼저 우리들이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 봉사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과학선진국에 진입토록 해야함은 물론 과학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멀지 않은 장래에 탄생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인 및 경제인들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경제의 성장이나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분야별로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진 우리나라 과학자들에게 이들의 학문적 공헌에 걸맞은 사회적 예우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㉓